

힐링보다 해방!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김나연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힐링’ 담론이 인기를 끌었다. 힐링 열풍 속에서 불명, 물명, 여행과 캠핑이 뿔났다. 힐링 열풍은 그만큼 피로하다는 비명이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질주 해야 하는 경쟁사회에서 힐링은 자기 돌봄과 자기배려의 안간힘이었다. 그러나 힐링 문화는 성과 압력의 사회를 은밀히 지탱하고 유지하는 문화적 속임수가 아닐까? 여행이 끝나 일상으로 되돌아올 때 간혹 이유 모를 우울에 사로잡혔던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 저세상 풍경에 취한다고 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비용 지불마저 요구하는 힐링 문화는 자본주의가 유혹하는 행복 산업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울은 현실에 대한 주체의 성숙한 반응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힐링보다 ‘해방’을 이야기하는 <나의 해방일지>(JTBC, 2022.4.9~2022.5.29, 16부작)는 참신하다. 더 이상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지만,

‘힐링’으로 삶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해방일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하루의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3남매의 이야기다. 그러나 드라마 속 주인공인 3남매는 곧 우리 자신의 분신 자아이기도 하다. 우리들 다수는 3남매처럼 서울이라는 중심에서 떨어진 경기도 산포시, 즉 주변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작중 창희의 “경기도는 노른자 서울을 감싸는 흰자”라는 자조처럼 주변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중심을 선망하고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면서 자기혐오에 사로잡히기 쉬움을 의미한다. 언제나 침울하거나 혹은 화가 나 있는 3남매처럼, 사회적 주변인들은 자기비하, 질투,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 경험에 노출되기 쉽다. 경기도민의 위치는 모호해서 수도권 바깥의 다른 지역들처럼 ‘로컬’을 자처하며 독자적인 삶의 양식을 개발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주변인들은 들러붙어 자신을 사로잡는 불유쾌한 감정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절치부심해 중심으로 진입하는 것이 사회적 주변인들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복음성가처럼 되뇌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개발에 매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면과 성실로 계급이동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20대 젊은이들마저 탁월한 삶을 꿈꾸기는커녕 9급 공무원이 되어 최저 낙원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렇다고 그나마 가진 것들을 훌훌 내던지고 귀농이나 자연인 대열에 합류하기도 어렵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두고 온 세상을 향한 그리움이나 낙오의 고독과 싸워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선망과 동경을 품고 중심에 가까이 가려는 분투 대신에 우리의 취약성을 상호 환대하

는 것은, 점차로 소수자화하고 있는 우리의 자기해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를 추앙한다면 우리를 교체 가능한 존재로 취급하며 상처를 안겨주는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은 마음이 조금은 치유 되지 않을까? 3남매 중 막내인 미정은 환대의 혁명적 힘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대기업 카드 회사의 계약직 사원인 미정은 마을의 이방인이자 알코올중독자인 '구씨'에게 자신을 추앙하라고 명령한다. 자신은 단 한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며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에 물을 길어 붓듯이 가득 채우라고 말한다. '추앙'은 미정처럼 '갑을사회'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성 사회에 복종하고 생존을 위한 교활한 기술을 배우기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돌봄의 기술이다. 그녀의 예언처럼 이야기의 끝에 이르면 미정과 구씨는 비록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행복을 느끼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에로스의 종말'이 선언되는 시대인 탓에 <나의 해방일지>는 다소 당혹스러움을 안겨준다. 미정은 여왕처럼 위엄에 차서 자신을 추앙하라고 명령하지만 그것은 기실 '구씨'를 구원하겠다는 선언처럼 읽힌다. 비록 절제미를 잃지 않는 알코올중독자이지만, 구씨는 치명적인 기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정처 없이 어디론가 떠나려가고 있는 듯 위태로워 보인다. 이렇듯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를 사랑하겠다는 미정이 성모 마리아 콤플렉스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혹조차 든다. 미정이 구씨의 외진 집에 드나들 때 어떤 여성 시청자들은 불안한 예감으로 긴장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장면은 화해롭기보다는 불안한 감정을 촉발시킬 만큼 젠더 전쟁이 깊어진 시대인 것이다. 그러나 미정은 결코 훼손된 남자를 구원하겠다고 자신을 천사로 착각하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다. 미정은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들어 올리는 마법적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지만, 자신을 향한 추앙부터 요구하는 사랑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왜 사랑이 아니고 '추앙'이어야 할까?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결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하면서 대상에 대한 배려, 책임, 존중, 지식의 기술을 이야기한다. 에리히 프롬이 지적하듯이 사랑은 구매욕과 상호 유리한 교환이라는 관념에 근거해 있는 우리의 전체적인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랑은 사실상 남자의 권력과 여자의 아름다움이 교환되는 거래 문화의 일부다. 따라서 사랑을 하는 남녀는 서로에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며, 사랑과 착취를 혼동한다. 남녀의 권력관계가 비대칭적인 사회에서 사랑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 쪽은 여성이 되기 쉽다. 여성은 사랑의 기술(art)로 경쟁사회에서 영혼이 마모된 남성을 치유하고, 남성이 사회적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의 제공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사랑은 여성의 희생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배의 언어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20~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탈로맨스', '비혼'이 선언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해방일지>는 사랑의 환상을 이야기하기보다 사랑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전위적인 텍스트다. 돈을 갚지 않는 애인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미정은 구씨에게 자신을 추앙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사랑의 기술을 가르친다. 사랑은 상대에 대한 나르시시즘적인 착취가 아니라 그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임을 일깨우듯이 먼저 자신을 추앙하라고 요구한다. 미정의 오빠인 창희의 사랑 서사는, 사랑은 상대방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창희가 사랑하는 지현이는 성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아온,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급진적인 상상력을 보여준다. 또한 그간 손해 보지 않겠다는 각오로 사랑에 임해온 기정은 결혼 상대로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애 딸린

이혼남이자 미혼의 누나들과 살아가는 조태훈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마치 부동산을 구매하듯이 상대를 고른다면 사랑이 영혼을 들어 올리는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해방으로서의 사랑 서사는 우리 시대의 곤궁함을 비추어주기조차 한다. 오욕의 먼지를 뒤집어쓴 사랑을 다시 불러와 새롭게 이야기해야 할 만큼 희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쟁사회의 말단에 위치한 미정의 이야기는, 정의나 연대 같은 사회적 가치가 무너진 사회에서 개인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인식처가 사랑임을 보여준다. 미정의 일터는 신분 사회와 다를 바 없고, 그곳에서 계약직 사원인 미정은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언제든 교체 가능한 물건처럼 그 존재가 하찮다. 직장 상사의, 직급에 근거한 무시나 혐오와 달리 미정은 사내 디자인 공모대회에서 1등상을 받을 만큼 탁월한 미적감각의 소유자다. 그러나 미정은 동기이지만 정규직인 동료와 유부남 직장 상사의 불륜 사건에 휘말리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된다. 미정의 '노오력'과 능력(재능)은 미정을 무시당하는 계약직이 아니라 당연한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

미정이 역올한 사건에 휘말려 위기에 처하자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우려와 희망의 말이 오갔다. 누군가는 미정이 속한 사내 동아리 '해방클럽'의 일원인 조태진이 회사 법무팀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동아리 사람들이 그녀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기대와 불안 속에서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미정은 회사에서 '떨러났고',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는 더 이상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새 회사에서 단순노동에 가까운 업무를 담당하지만 다행히도 미정은 밝고 활기차 보였다. 비록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지만 미정은 자신이 맡은 업무의 명쾌함과 작은 회사 특유의 느슨함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

다. 그러나 미정이 타고난 미감을 가진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청자로서는 적잖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정은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꿈을 버리고 재능을 썩혀야 했던 것이다.

아마도 대중에게 환상을 주입하는 일을 제 역할이라고 여기는 작가라면, 미정을 정규직으로 승진시키고 불륜 남녀를 퇴사시킴으로써 시청자의 사회와 세상에 대한 의혹을 무마하고자 했을 것이다. 만약 막장이 전문인 작가라면 스펙터클한 복수의 서사를 통해 우리의 억압된 공격욕을 충족시키면서, 보복을 원한다면 능력부터 기르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막장 드라마는 사실상 능력주의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박해영 작가는 이와 같은 드라마의 익숙한 관습 혹은 문법을 거절한다. 작가가 지독히도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 직장 내 갑질에 관한 뉴스들은, 세상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야흐로 능력주의를 내세운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는 각종 탈규제와 유연화 정책들을 통해 개인을 경쟁적 시장에 던져두고 있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차별을 은폐하고 또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 이상 자기계발의 모범적 주체가 된다는 것도 순진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나의 해방일지〉는 지극히 보수적인 사랑의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균열을 내는 급진적인 서사다. 그것은 점차로 이방인, 난민, 소수자화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환대의 윤리로서 사랑을 이야기한다. 추앙으로서의 사랑은 인간으로서 대접받거나 존중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외롭고 아팠던 우리에게 대한 이해와 연대의 윤리다. 다시 경기도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주변인들은 지배 질서에 묶여 사회에 대한 인정 욕망과 정서적 애착을 떨치기 힘들다.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슬픔, 무기력, 우울, 자기혐오, 공허 같은 감정들에 사로잡혀 자신을 갉아먹는

경험과 다르지 않다. <나의 해방일지>는 이처럼 위태로운 주변인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환대한다면 삶은 건널 수 있는 것이 되리라고 말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의 해방일지>는 자기나 사랑에 대한 환상화 기획이 아니다. 힐링을 통한 자기돌봄이 아니라 상호돌봄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나의 해방일지>는 건강하고 그 대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기도 하다. 너와 내가 서로를 환대한다면 어느새 세상이 변할 수도 있다는 낙관이 지금은 더욱 필요한 때인 것이다.